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최경주 "시즌 첫 승 간다"

■ PODS 챔피언십 3R

선두에 1타 뒤진 3위

최경주(37·나이키골프·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PODS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1타차 3위에 올라 우승 '8부 능선'에 다다랐다.

최경주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베이 이니스브룩골프장(파71·7천230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솎아내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경주는 합계 8언더파 205타로, PGA 투어 통산 12승의 노장인 마크 캘커베키아와 히스 슬로컴(이상 미국·204타)을 1타차로 뒤쫓았다.

이날 최경주는 7번홀부터 10번홀까지 4개홀 연속 버디를 뽑아내고, 나머지는 모두 파로 막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다.

작년 이니스브룩골프장에서 열렸던 크라이슬러 챔피언십을 제패한 최경주는 스폰서가 바뀐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2연패이자 통산 5승을 달성한다.

최경주는 앞서 2002년 이 골프장에서 개최됐던 탬파베이클래식에서 생애 두 번째 우승을 일궈내는 등 이 코스와 '찰떡 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최경주는 대회 첫날 2언더파 69타로 공동 13위에 오른 뒤 둘째 날도 2타를 줄여 공동 3위로 도약하는 등 사흘 연속 60대 타수를 치면서 코스에 완전하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최경주는 3라운드 합산 드라이브샷 거리와 퍼트수, 그린 적중률 등이 모두 1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안정된 경기를 했다.

유망주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둘째 날 주춤했으나 이날 3언더파 68타를 치면서 합계 5언더파 208타로 공동 8위에 진입했다.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1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2언더파 211타로 공동 26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작년 1타차 2위 이선화

"올핸 반드시 정상 서겠다"

LPGA 마스터카드클래식 2R

6언더파…선두와 2타차 김미현 4위·정일미 5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스터카드클래식이 이틀 연속 악천후로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선화(21·CJ)가 지난해 준우승에 머문 한풀이에 나섰다.

이선화는 11일(한국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보스케 레알 골프장(파72·6천901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로 선두 미건 프란세라(미국·136타)에 2타 뒤진 공동2위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 1타가 모자라 준우승에 그쳐 아쉬움을 곱씹었던 이선화는 시즌 첫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선화가 우승까지 내달리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

1라운드가 쏟아진 폭우 탓에 순연된데 이어 2라운드마저 3시간 가량 중단됐다가 속개된 통에 129명의 선수 가운데 42명만 겨우 2라운드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30명은 아예 2라운드 티오프도 못했다.

때문에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때려 선두에 나섰던 필즈오픈 우승자 스테이시 프라마나수드(미국)는 2라운드에서 2개홀 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이선화와 함께 6언더파로 공동2위에 올라 있어 이선화의 순위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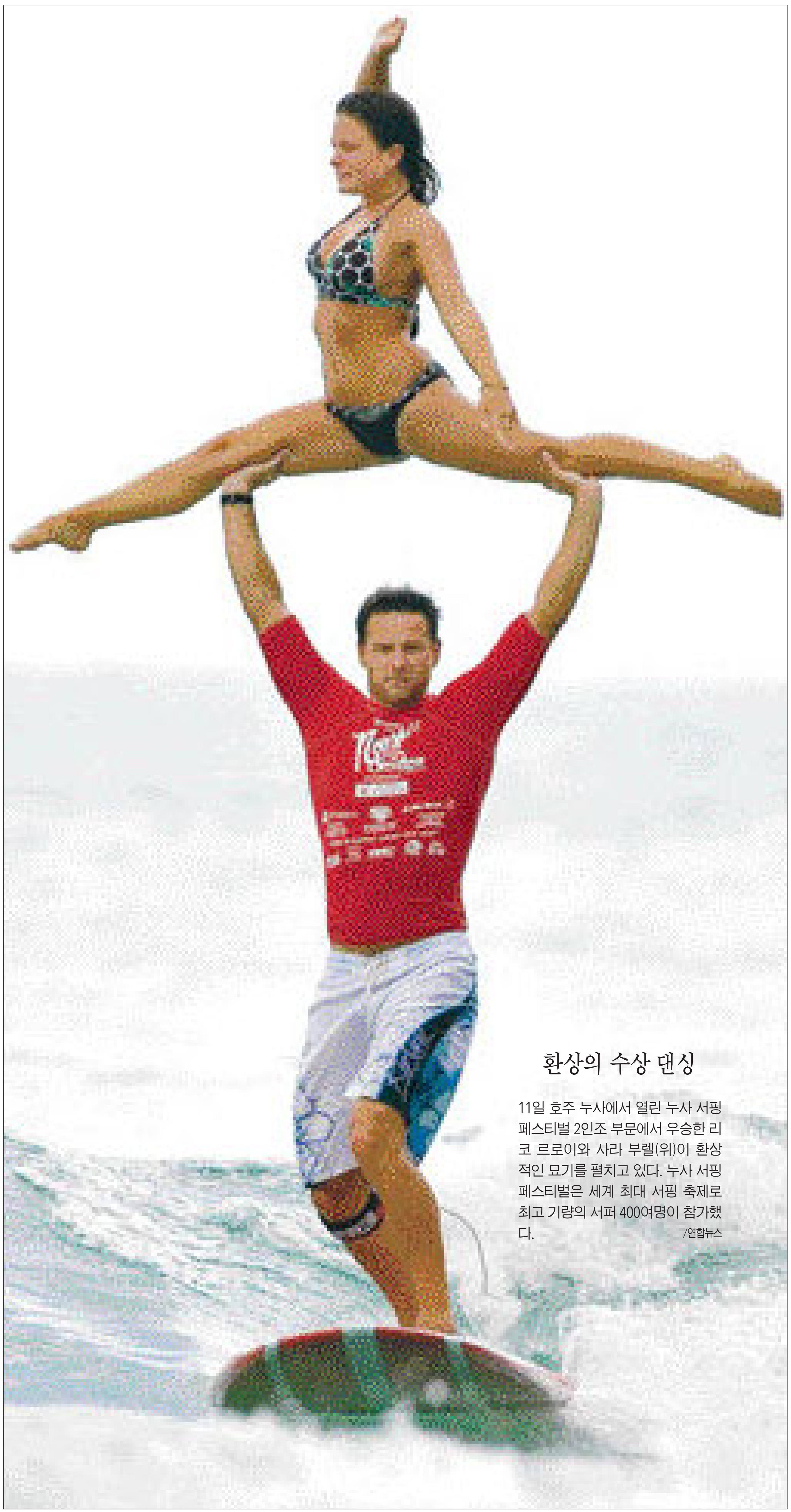
오히려 우승 경쟁에 유리한 입지를 다진 한국 선수는 김미현(30·KTF).

1라운드에서 3타를 줄인 김미현은 2라운드에서 3개홀 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버디 2개를 보태 중간합계 5언더파로 4위에 포진했다.

이선화, 김미현과 함께 1라운드를 69타로 마친 정일미(35·기가골프)가 2라운드 5번홀까지 타수를 그대로 지켜 중간합계 3언더파로 공동5위를 달렸다.

대회 3연패와 통산 70승에 도전장을 낸 소렌스탐도 1라운드에서 69타를 때려낸 뒤 2라운드에서 2개홀을 파로 막아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과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환상의 수상 댄싱

11일 호주 누사에서 열린 누사 서핑 페스티벌 2인조 부문에서 우승한 리코 르로이와 사라 부렐(위)이 환상적인 묘기를 펼치고 있다. 누사 서핑 페스티벌은 세계 최대 서핑 축제로 최고 기량의 서퍼 400여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이규혁 男 1,000m·이상화 女 500m

한국新 동반 질주

■ ISU 빙속 세계종별선수권

한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맏형' 이규혁(29·서울시청)과 여자 단거리 '기대주' 이상화(19·한국체대)가 20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종별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규혁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올림픽오벌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자 1,000m에서 1분07초51로 3위를 차지했다.

이 기록은 지난 2005년 11월 자신이 세웠던 한국기록 1분08초16을 16개월 만에 0.65초 앞당긴 성적이다.

세계기록(1분07초03) 보유자인 미국의 '검은 탄환' 샤니 데이비스(미국)가 1분07초28로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데니 모리슨(캐나다)이 1분07초30의 간발의 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500m에서는 이상화가 16개월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상화는 1차 레이스에서 37초81로 결승선을 통과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전 한국기록(37초90)을 0.09초 끌어 당겼다.

이규혁이 11일 열린 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종별선수권대회 남자 1000m경기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상화는 2차 레이스에서 38초02초에 그쳐 1, 2차 레이스 종합점수에서 75.830점으로 4위를 차지하면서 아깝게 동메달을 놓쳤다.

독일의 예니 볼프가 1,2차 레이스 종합점수 74.420점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제6회 창춘(長春)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인 왕베이싱(중국)이 74.530점으로 2위에 올랐다.

특히 볼프는 500m 2차 레이스에서 37초04를 기록해 기존 세계 기록을 0.18초나 앞당긴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다.

한편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여자 단체전 추적경기에 한국 선수단은 출전하지 않았다.

대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문준(성남시청)이 남자 1,500m에 출전하고, 이상화는 여자 1,000m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기록에 도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李 승엽 병규 '함께 결승타'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과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나란히 결승타를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5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 중이던 이병규는 19타석 만에 안타를 때려내고 일본에서 첫 타점도 신고하며 부진 탈출을 알렸다.

이승엽은 11일 효고현 고시엔 구장에서 벌어진 일본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와 시범경기에서 4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 1회 깨끗한 우전 안타로 선제 타점을 올리면서 4타수 1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전날 한신전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친 이승엽은 지난 9일 오릭스 버펄로스전에서 2007년 첫 홈런을 쏘아 올린 뒤 이날 2경기 만에 안타를 추가했다.

이승엽은 1회 1사 1,2루의 첫 타석에서 상대 우완투수 다이요의 복판 직구를 그대로 잡아 당겨 1, 2루 간을 총알같이 꿰뚫는 우전 안타를 터뜨렸다.

2루 주자 다니 요시토모가 홈을 밟았고 이승엽은 시범 경기 4타점째를 올렸다. 요미우리가 3-2로 이기면서 이승엽의 타점은 결승타가 됐다.

이병규도 나고야 돔에서 열린 라쿠텐 골든 이글스전에서 적시타를 때려내며 지난 2일 오릭스전 이후 6경기 19타석 만에 안타 맛을 봤다.

중견수 겸 톱타자로 선발 출장한 이병규는 1회와 3회 각각 투수 땅볼, 3루 땅볼에 그쳤지만 2-2로 맞선 4회 1사 만루에서 좌투수 마쓰자키 신고로부터 유격수 쪽 내야 안타를 뽑아 3루 주자 모리노 마사히코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주니치가 6회 1점을 보태 4-2로 승리하면서 이병규의 타점 역시 결승타로 기록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